



보도	2026.9.22.(화) 석간	배포	2026.9.21.(월)			
담당부서	은행리스크감독국 건전경영팀	책임자	팀 장	김웅겸	(02-3145-8330)	
		담당자	선 임	최영식	(02-3145-8334)	

'26.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[잠정]

1. 개 요

- '26.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*(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)은 0.63%로 전월말(0.56%) 대비 0.07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57%) 대비 0.06%p 상승]

* 구분[% , %p]	'25.7	'25.8	'25.9	'25.10	'25.11	'25.12	'26.1	'26.2	'26.3	'26.4	'26.5	'26.6	'26.7
연체율	0.57	0.61	0.51	0.58	0.60	0.50	0.56	0.62	0.56	0.61	0.67	0.56	0.63
전월 변동	+0.05	+0.04	△0.10	+0.07	+0.02	△0.10	+0.06	+0.06	△0.06	+0.05	+0.06	△0.11	+0.07

※ 통상 분기말에는 연체채권 정리 확대로 연체율이 큰폭으로 하락하는 경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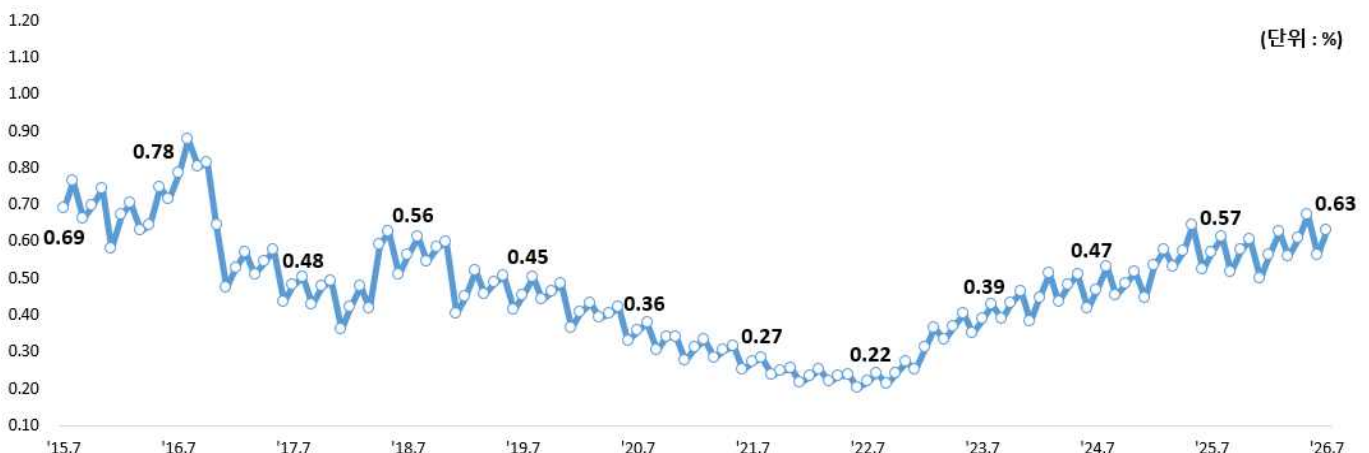
- '26.7월중 신규연체 발생액*(3.2조원)은 전월(2.6조원) 대비 0.6조원 증가하였고, 연체채권 정리규모(1.4조원)는 전월(5.3조원) 대비 3.9조원 감소

	(24.7월)	(25.7월)	(26.2월)	(26.3월)	(26.4월)	(26.5월)	(26.6월)	(26.7월)
* 신규 연체채권 규모(조원):	2.7	2.8	3.0	2.7	2.9	3.3	2.6	3.2
연체채권 정리규모(조원):	1.5	1.6	1.3	4.3	1.6	1.5	5.3	1.4
연체채권 증감규모(조원):	+1.2	+1.2	+1.7	△1.6	+1.3	+1.7	△2.7	+1.8

- '26.7월중 신규연체율('26.7월중 신규연체 발생액/'26.6월말 대출잔액)은 0.12%로 전월(0.10%) 대비 0.02%p 상승 [전년 동월(0.11%) 대비 0.01%p 상승]

* 신규연체율(%): ('25.7) 0.11 → ('26.3) 0.11 → ('26.4) 0.12 → ('26.5) 0.13 → ('26.6) 0.10 → ('26.7) 0.12

원화대출 연체율 추이('15.7월~'26.7월)



※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, 연체율은 통상적으로 분기 중 상승했다가 분기 말에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

2. 부문별 현황

- **(기업대출)** '26.7월말 현재 기업대출 연체율(0.78%)은 전월말(0.68%) 대비 0.10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67%) 대비 0.11%p 상승]
- 대기기업대출 연체율(0.36%)은 전월말(0.22%) 대비 0.14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14%) 대비 0.22%p 상승]
 - 중소기업대출 연체율(0.91%)은 전월말(0.82%) 대비 0.09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82%) 대비 0.09%p 상승]
 - 중소기업 연체율(1.00%)은 전월말(0.92%) 대비 0.08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90%) 대비 0.10%p 상승]
 -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(0.77%)은 전월말(0.69%) 대비 0.08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72%) 대비 0.05%p 상승]
- **(가계대출)** 가계대출 연체율(0.42%)은 전월말(0.40%) 대비 0.02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43%) 대비 0.01%p 하락]
- 주택담보대출 연체율(0.29%)은 전월말(0.28%) 대비 0.01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29%)과 유사]
 -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(신용대출 등)의 연체율(0.84%)은 전월말(0.77%) 대비 0.07%p 상승 [전년 동월말(0.86%) 대비 0.02%p 하락]

국내은행 원화대출 부문별 연체율 추이

(단위 : %, %p)

구 분	연체율 시계열 ('13.12월~'26.7월)	'24.7월	'25.7월 (A)	'26.4월	'26.5월	'26.6월 (B)	'26.7월 (C)	증감	
								전년동월 (C-A)	전월 (C-B)
기업대출		0.53	0.67	0.74	0.84	0.68	0.78	+0.11	+0.10
대기업		0.05	0.14	0.22	0.27	0.22	0.36	+0.22	+0.14
중소기업		0.67	0.82	0.90	1.00	0.82	0.91	+0.09	+0.09
중소법인		0.71	0.90	0.98	1.11	0.92	1.00	+0.10	+0.08
개인사업자		0.61	0.72	0.78	0.84	0.69	0.77	+0.05	+0.08
가계대출		0.38	0.43	0.42	0.45	0.40	0.42	△0.01	+0.02
주택담보대출		0.25	0.29	0.30	0.31	0.28	0.29	-	+0.01
가계신용대출등		0.76	0.86	0.83	0.90	0.77	0.84	△0.02	+0.07
원화대출계		0.47	0.57	0.61	0.67	0.56	0.63	+0.06	+0.07

* 은행계정 원화대출금 및 신탁대출금 기준

3. 평가 및 향후 감독방향

□ '26.7월말 연체율은 전월 대비 연체채권 정리(상매각 등) 규모 축소* 및 중앙 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·워크아웃에 따른 신규연체 등의 영향으로 상승 전환

* 통상 은행이 분기말에 연체채권 상매각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분기중에는 상매각 규모 축소

○ 시장금리 상승 기조 및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할 때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·확대될 가능성이 상존

□ 금감원은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 등 건전성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,

○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및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건전성을 관리해 나가도록 지속 유도할 예정